

□ 사례명 : 폐부직포(보온덮개) 무상제공을 통한 폐기물처리 예산절감

구 분	주 요 내 용
① 사업 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 치 : 경북 성주군 성주읍 삼산3길 73 ○ 추진기간 : 2018. ~ 2023. ○ 사 업 비 : 해당없음 ○ 사업내용 : 폐부직포 무상제공 및 상차 지원 등
② 추진 경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3. 1. ~ : 폐기물 재활용업체와 무상처리 협약 - 3,200톤 협약, 2억3천만원 정도 예산절감 ○ 2018. 1. ~ : 폐부직포 무상제공(폐기물 처리 예산 절감) ○ 2021. 1. ~ : 참외보온덮개 대체재(에어캡 보온덮개) 개발
③ 장애요인 극복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내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부직포 처리를 위한 예산이 지속해서 소요됨 ○ 폐부직포 발생량 증가로 폐기물처리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○ 재활용 가능한 부직포 대체재(에어캡 보온덮개) 개발 및 보급 추진 ○ 폐부직포 무상제공 등으로 폐기물처리 예산 절감
④ 우수사례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폐부직포 발생량 증가로 군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 * 연도별 발생량(톤): ('18)953, ('19)658, ('20년)745, ('21년)1144, ('22년)938 ○ 폐부직포 무상제공 및 상차 지원 등으로 폐기물처리 예산 절감 * 연도별 무상제공량(톤): ('18)92, ('19)48, ('20년)61, ('21년)71 ('22년)68, (~'23.8)79
⑤ 성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8 ~ '23년 : 무상제공을 통해 1억4백만원 정도 예산 절감 * '18년: 92톤 × 251,250원 = 23,115,000원 * '19년: 48톤 × 280,730원 = 13,475,040원 * '20년: 61톤 × 260,000원 = 15,860,000원 * '21년: 71톤 × 260,000원 = 18,460,000원 * '22년: 68톤 × 239,000원 = 16,252,000원 * ~ '23년 8월: 79톤 × 211,000원 = 16,669,000원

폐부직포(보온덮개) 무상제공을 통한 폐기물처리 예산절감

1. 과제 선정 내용

- 우리군 주요 특산품인 참외작물 재배시 부직포(보온덮개) 사용이 불가피하여 폐부직포가 지속적으로 발생
- 폐부직포 발생량 증가로 폐기물처리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

* 연도별 발생량(톤): ('18)953, ('19)658, ('20년)745, ('21년)1144, ('22년)938

*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연평균 811톤 폐기물 반입, 2억1천6백만원 처리예산 소요

- 폐부직포처리량 감량을 통한 재정부담 경감 필요성 대두

※ 폐부직포 반입 및 처리현황

[단위 : 톤]

년 도	적재량			처 리 량			잔 량
	계	이월량	반입량	계	위탁	재활용	
2022	1,009	71	938	879	811	68	130
2023.08.	560	130	430	283	204	79	277

※ 위탁처리 현황

[단위 : 톤, 천원]

구분	2022년			2023년		
	처리량	처리단가	처리금액	처리량	처리단가	처리금액
폐부직포	811	239	193,515	204	211	43,044

2. 문제원인 분석

- 참외재배가 많은 우리군 농업 특성상 폐부직포 발생이 불가피함
 - * 참외재배 면적 : 3,420ha(전체 경지면적 8,219ha의 41.6%),
 - * 참외 조수입 : 6,014억(5년 연속 5천억 이상 달성)
- 작물은 생육 환경이 정해져 있음. 재배 기술 및 부직포 교체 주기 개선을 통한 폐부직포(보온덮개) 발생량 감량이 어려움
- 참외는 12월에 정식하여 2월부터 출하가 됨. 다른 가온 시설 없이 보온덮개에 의존하여 월동하기 때문에 참외재배에 꼭 필요함

- 2012년 태풍 수해를 계기로 깨끗한 들녘 만들기 사업 및 집중 수거 기간 운영을 통해 폐부직포를 집중 수거 중임
- 폐기물처리량 감량 및 예산 절감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폐부직포 재사용률을 높이고, 장기적으로는 부직포 대체재 개발 노력



▲ 참외하우스에서 사용중인 보온덮개



▲ 보온덮개 대체재(에어캡 보온덮개)



▲ 하천에 방치된 폐부직포를 수거 중인 모습



▲ 처리를 위해 적환장에 있는 폐보온덮개

3. 방안 마련 및 실행

- 폐부직포 무상제공을 통해 재사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여 '24년까지 당해연도 반입량의 30%, '26년까지 당해연도 반입량의 50%까지 처리할 계획임

※ 연도별 무상제공 현황

연도	반입량(톤)	무상제공량(톤)	무상제공 비율(%)	비고
2022	938	68	7.2	
~ 2023. 8.	430	79	18.3	

○ 목표달성 계획

- SNS 홍보 및 타 지자체 및 협회 등을 대상으로 무상제공 홍보 시행
- 폐부직포 반출 시 상차, 분리선별 등 편의 제공
- 태양광 발전시설 제초매트, 양계농장 등 재사용 대상 추가 발굴

4. 장애극복

- 해당없음

5. 성과(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)

- '18부터 최근 6년간 무상제공을 통해 419톤의 폐부직포를 재사용, 1억4백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함

* '18년: 92톤 × 251,250원 = 23,115,000원 / * '19년: 48톤 × 280,730원 = 13,475,040원

* '20년: 61톤 × 260,000원 = 15,860,000원 / * '21년: 71톤 × 260,000원 = 18,460,000원

* '22년: 68톤 × 239,000원 = 16,252,000원 / * ~ '23년 8월: 79톤 × 211,000원 = 16,669,000원

- 성과 달성 시 '26년 1억원 정도 예산 절감 및 자원 재사용률 극대화

* 938톤 × 50% × 211,000원 = 98,959,000원('22년 연간 반입량, '23년 처리비 기준)

※ 폐부직포 재사용 대상(예)



▲ 벌통 차광 및 보온재



▲ 태양광발전시설 제초매트 대응